검은딱새

글 · 사진 李正雨
(鳥類硏究家)

學名 Saxicola torquata Stejneqeri
英名 Stonechat

들꽃 봄꽃이 앞다투어 피는 화사한 4월 중순이 되면 봄의 전령, 검은딱새가 어느덧 날아온다.

검은딱새는 간결한 몸새 만큼이나 동작도 경쾌하고 가냘픈 나무가지 꼭대기에 앉아 울기를 좋아하는데, 정해둔 영역을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보통 숲이 우거진 곳으로는 잘 가지 않고 농경지나 과수원 같은 평지를 즐겨찾는 초원성 조류이다.

암수는 대조적으로 숫컷이 아름다운데 암컷은 머리나 등판이 거의 점점이 찍힌 갈색이므로 쉽게 자웅이 가려진다.

5월의 산란기 이전에는 목청이 탁성이기는 하지만 쉴새 없이 울어대어 봄 들판을 화창하게 연출한다.

월동지는 중국 남부로 4월에 도래하여 번식을 한후 10월이 되면 다시 떠나는 여름철새이다.

지난해 4월 7일 봄볕이 따사로운 전남 당사도의 유채밭에는 방금 도착한 검은딱새 수십 쌍이 즐거운 날음으로 날아다니다 이틀후에는 한마리도 없이 떠나 내륙으로 날아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검은딱새는 한반도가 고향이다.

추위를 피해 중국 남부로 떠나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곳이 고향이다.

농경지나 풀밭을 날아다니며 곤충만을 포식하는 익조로서 인간에게는 추호도 신세를 지지 않는 익조 중의 익조이다. 번식은 5월 중순에 보통의 여느 새들과 같이 나무가지에는 하지 않고 농경지의 밭 이랑이나 언덕의 땅에다 둥지를 짓는데 풀뿌리를 물어다 밥그릇형으로 지은 다음 동물의 털이나 조류의 보드러운 깃털로 산좌를 깔아 정교하고 예쁜 둥지를 만든다.

한배의 산란수는 6개가 보통이고 엷은 녹청색에 갈색의 점이 찍힌 알을 낳는데 암컷이 주로 포란을 하고 부화는 15일 이내에 한다.

특히 어린새를 기를 때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곤충을 물어다 먹이는데 2주일이 되기전에 둥지를 떠날 수 있도록 기른다.

생태계의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듯, 과거 대만에는 기록이 없던 새였으나 1950년 이후 적은 수 이지만 도래하는 미조(길 잃은 새)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봄을 대변하는 검은딱새가 농경지의 농약살포, 식수오염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은 자연을 아끼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